



전통, 현대미술을 만나다

전남도립미술관, 7월18일까지 '산을 등지고...'개관전...2만여명 다녀가
허백련·허건·세오·이이남 등 13명 작품...佛 작가 '로랑 그라스'전 눈길

지금, 광양에 자리한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을 방문 하면 즐거움이 두 배다. 독특한 건물 외관 등 새롭게 문을 연 미술관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재미와 오랫동안 준비한 '개관 기념전'을 통해 다채로운 근현대 미술의 현장을 조망할 수 있다.

414억원이 투입된 전남도립미술관은 옛 광양역사 자리에 등지를 틀었다. 사통팔달 기차역에 자리한 터라 접근성이 좋고 탁 트인 공간이 인상적이다. 미술관 앞에는 오래된 창고를 개조한 '광양예술창고'가 자리하고 있고 아트 벤치 등이 놓인 산책로도 조성돼 있어 한가로이 거닐기도 좋다.

'전남의 풍경을 담다'라는 컨셉으로 설계작업이 진행된 미술관은 전면을 유리로 감싼 독특한 외관이 눈에 띈다. 파란 하늘과 푸른 나무가 그대로 반사돼 보이는 유리창으로는 사시사철 아름다운 모습이 자리할 터다. 1만 7598㎡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인 미술관 안에서 내다보는 바깥 풍경은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도립미술관은 9개의 전시실을 모두 한 층에 배치한 점이 눈에 띈다. 지하 1층에 자리한 전시실들은 특히 층고가 6m에 달해 인상적으로, 이번 개관전에서 선보이는 대형 작품들에 안성맞춤이다.

오는 7월18일까지 열리는 개관특별기획전 '산을 등지고 물 바라보다'전은 현대와 미래의 미술이 전통미술과 어떤 상호관계성을 갖고 작품으로 해석되는 지 들여다본 전시로, 지금까지 2만여명이 다녀갔다.

3개국 13명 작가의 작품을 만나는 개관전은 남도미술의 뿌리를 찾는 '의재와 남농·거장의 길', '현대와 전통, 가로지르다', '로랑 그라스:미래가 된 역사' 등 세 개의 전시로 구성돼 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남도 전통 회화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의재 허백련과 남농 허건의 작품들을 가장 먼저 만난다. 기획전의 프롤로그 성격인 이 공간은 두 사람의 대표작을 통해 거장의 숨결을 느끼고 현대미술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는 기획으로 꽃과 새가 주제인 허백련의 8폭 짜리 '팔곡화조 병풍', 허건의 '삼승도' 등과 두 사람이 사용했던 물품들도 만날 수 있다.

산수화와 수목화로 상징되

는 전통을 한국화, 미디어아트, 설치 등 현대 언어로 재해석한 현장을 만나는 현대작가 10인전은 의재의 장손 허달재 작가의 '홍매', '백매' 작품으로 시작한다. 또 남농의 장손인 허진 작가의 '익명인간', '유목인간' 시리즈도 만날 수 있다.

이 섹션에서 만나는 작품들은 회화의 강렬한 맛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광주 출신으로 독일에서 주목받고 있는 세오의 신작 '나의 집에 낫선 나' 시리즈는 강렬한 색감과 과감한 구성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영암 출신 조병연 작가의 '월출산 전도'는 10m가 넘는 대작으로 담백한 전통수묵화의 매력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져 감동을 전한다. 그밖에 김진란 작가와 독일 미디어 설치작가 바루흐 고틀립이 협업한 작품은 전통한옥을 재해석한 공간 구성과 단청 문양 이미지, 국악연주 등이 어우러져 독특한 느낌을 전한다.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의 대형 신작 '역전된 산수'는 의재 허백련의 '산수팔곡병풍'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영상 속 산수화와 물 속에 투영된 산수화를 비교해 보는 재미가 있다. 또 황현기 작가는 의재의 '목단화운군'을 차용해 실리온으로 작업한 작품을 선보이며 장승과 탑을 소재로 작업하는 장창익은 미술관이 '발전'한 작가다.

해외 전시로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로랑 그라스(1973-)전을 마련했다. 2008년 마르셀 뒤샹상을 수상한 로랑 그라스는 전통과 현대, 미래를 관통하는 작품으로 눈길을 끈다. 3개의 전시공간을 폭넓게 활용한 이번 전시에서는 윤두사의 '말 탄 사람'과 정선의 '금강내산총도'를 재해석한 신작 '과거를 연구하다' 시리즈를 비롯해 총 34점을 선보인다.

흥미로운 건 다양한 주제로 작업한 영상과 설치 작품들이다.

호주 원주민 유적지와 주변의 협곡, 호수 등을 촬영한 '오토', 캐나다 퀘벡주에서 600만 명이 9시간 동안 암흑 속에 있던 현상을 연구해 태양의 힘을 표현한 애니메이션 '태양 풍',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의 식물 변형 등 식물의

1. 프랑스 작가 로랑 그라스의 영상과 설치 작품
2. 김선두 작가의 '느린 풍경-별 헤는 밤'(왼쪽)과 세오 작가의 '나의 집에 낫선 나' 연작.



지난 3월 광양에 문을 연 전남도립미술관 내부 모습.

돌연변이 현상을 바탕으로 제작한 설치미술 '돌연변이 꽃' 등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작품들이다.

그밖에 썸른 가든이 조성된 야외전시장에서는 세계적인 작가 줄리안 오피와 자비에 베이앙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이지호 관장은 "전통에서 출발해 동시에 현대미술을 보여주는 장(場)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개관전을 준비했다"며 "무엇보다 대작을 통해 '회화의 맛'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립미술관은 개관전에 이어 최근 기증받은 '이건희 컬렉션' 21점을 오는 9월 공개한다. 기증작에는 김환기, 천경자, 오지호 화백 등의 작품이 포함돼 있다.

/글·사진=광양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상자루'

광주관광재단 '풍류달빛공연'

5일 무등산생태탐방원 야외공연장

'대한민국 예술여행 대표도시 광주'를 선포한 광주관광재단은 광주의 선비 풍류 문화와 역사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2회 풍류달빛공연'을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오는 5일 오후 7시 무등산생태탐방원 야외공연장(광주시 북구 충효동)에서 열리며, 풍물천지 아리솔과 코리아 집시 상자루의 무대로 꾸며진다.

풍물천지 아리솔은 타조 털이 달린 부포를 흔들고 돌리며 노는 '부포놀이', 화려한 줄공과 사자 탈춤을 추는 '연희마당' 등을 선보이며, 상자루는 '지신 밝기'와 미국 기타리스트 Stevie Ray Vaughan(SRV)의 스타일을 결합한 '지신RV', 아쟁, 기타, 장구 연주와 서양의 블루스를 융합한 '아쟁인 블루스' 등을 무대에 올린다.

2016년 창단한 풍물천지 아리솔은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등을 통해 전통예술을 해외에 알렸다. '국악의 재발견'이라는 평가를 받는 국악 단체 '상자루'는 2018년 제10회 대한국악제 금상을 비롯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 등 다양한 방송과 축제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전예약을 한 무등산생태탐방원 투숙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대면공연이 진행되며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외부 관람객의 출입은 통제된다. 이날 공연은 오는 8월 중 전국 MBC TV와 광주 MBC TV를 통해서 방송되며 광주관광재단이 운영하는 '광주관광TV' 유튜브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연경' 고전인문학강좌

4일 순천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

인문학연구소 연경이 진행하는 고전인문학 강좌가 오는 4일 오후 7시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순천시 중앙2길 11-19)에서 열린다.

이번 강연은 이기상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가 '시간의 옷을 입은 존재-하이데거 '존재와 시간''을 주제로 강연한다. 석연경 시인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에서 이 교수는 '하이데거의 삶의 여정'을 비롯해 '오늘날 존재물음의 필요성', '동상적인 '존재'의 의미', '인간 현존재의 시간성과 시간의 지평', '하이데거 철학으로부터 배운 것' 등을 시민들과 이야기할 예정이다.

한편 이 교수는 독일 뮌헨 에수회 철학대학교에서 철학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열암학술상 한국출판문화상 번역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하이데거의 실존과 언어' 등을 펴냈으며, 번역서로 '존재와 시간' 등 다수가 있다. 문의 010-3638-638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